가산면사무소 우금리로 이전 결정

마산리 주민,'면사무소 이전 명분 없다' 반발

▲가산면사무소 이전 결정 지역인 우현 농장 부지

가산면사무소 이전을 둘러싸고 청사추진위원회와 주민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산면청사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근)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산면사무소에 개최된 가산면청사추진위원회에서 가산면 청사를 현재 위치에서 가산면 우금리 105번지 우현농장 부지 3천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지 3천평중 2천평은 매입하고 1천평은 우현농장에서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에 대해 마산리 주민들은 "면 청사를 이전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현 청사에서 4km 떨어진 한적한 곳에 면 청사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면 청사 이전을 반대했다.

또 청사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사추진위원회는 이장과 개발자문위원 등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위원은 33명이었다.

가산면 청사이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33명중 찬성 19표, 반대12표, 무효 2표가 나와 과반수 다수결원칙에 따라 이전키로 했다는 것.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상만 경기도의원은 "시의원이 시청과 협의해 추진하는 사안인만큼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은 "가산면 청사 이전은 기존 면사무소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의 전환"이라며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농협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산리 주민들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부지 제공이라는 구실속에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포천 쓰레기소각장 신설 '五里霧中'

만세교리 주민자치위원회 반대 수위 높아

수십년 동안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온 만세교리 주민들이 포천시가 추진해온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자치위원회(공동위원장 원순재 홍진수)는 "신북환경 문제만 보더라도 시청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업체편에서 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라며 "쓰레기 소각장 신설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극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으로 통하는 마을진입로는 차량교행이 안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지가 12년이나 되었다며 포천시 당국의 무성의한 행정을 성토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반대로 만세교 쓰레기 적환장에는 지난 1일부터 쌓이기 시작한 쓰레기가 산을 이뤄가고 있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갈수록 생활쓰레기는 쌓이고 소각장 입지선정이 안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당분간 쓰레기 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시는 주민들에게 배포한 '환경자원화시설 조감도'를 통해 첨단환경자원화 시설로 일류공원 및 환경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하 주민소득 증대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모두 70억4천5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쓰레기 소각장을 가장 깨끗한 환경시설로 설치하고 교육시설과 시장관사등을 옮겨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포천시의 계획을 12년 동안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해온 포천시의 지나온 행정행태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계속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사건 || 사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검거

포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중생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 안은 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유모(53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경 포천시 신읍동소재 00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 안은 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을 위반 혐의다.

아내 살해 후 시체 유기

연천경찰서는 12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야산에 버린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김모(36)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공동묘지 야산으로 아내(35)를 유인,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나뭇잎으로 시체를 덮어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해 6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애인이 있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의자 검거

포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자동자등 불법사용 피의자 00씨(몽골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따르면 피의자 00씨는 13일 오후3시경 혈중알콜농도 0.027%의 주취 상태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차량을 차주의 허락없이 불법사용하여 소흘읍 송우리 시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였는바,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산불 재발 임야 1ha 소실

16일 오후 2시21분경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에서 불이나 임야 1ha를 태우고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소방헬기1대,의정부시청 직원과 소방대원 등 30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앞서 오전 7시30분께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야 0.6ha를 태우고 진화됐었다"는 시청직원 등의 진술로 미뤄 잔불이 남아 재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장애인에 구걸 시켜 돈 챙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12일 장애인에게 구걸행위를 시켜 수입을 챙긴 혐의(영리유인)로 송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송씨 아들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모(43)씨 등 장애인 4명에게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의정부로 데려온 뒤 합숙시키면 서울 지하철역과 시장 등에서 구걸토록 해 36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아들 송씨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개(犬) 450여마리 훔친 절도단 구속돼

보신탕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개(犬) 전문 절도범이 증가하고 있어 포천을 비롯해 경기북부 전 지역 개(犬)사육 농장에 비상이 걸렸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16일 포천, 양주 등을 돌며 농장주가 없는 틈을 타 사육중인 개(犬)를 훔쳐 보신탕 집 등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서모(48)씨 등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01년 북부지역에 기승을 부렸던 개 절도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께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김모(42)씨의 개 사육농장에서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한 뒤 개 70마리(시가 2천800여만원)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 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개 450여마리(시가 8천400여만원)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훔친 개를 도살시설이 완비된 서씨의 사육장에 보관한 뒤 도살. 처분하거나 전문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수기자
les5582@hanmail.net

포천시, 중문의대 입간판 철거후 방치

주변과의 조화 위해 다시 제작 요구

포천시가 축석령 포천 입구에 설치돼 있던 중문의과대학교 입간판을 상징조형물 설치를 이유로 철거한 후 재설치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입간판은 포천시가 중문의과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포천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중문의대측에 특별히 주문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포천시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철거된 입간판은 포천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버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의 횡포(?)로 비쳐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관계자는 "포천시가 철거후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설치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포천시 관계자는 "철거한 입간판을 그대로 설치할 경우, 대진대학교와 경복대 입간판과 큰 차이가 있어 다시 제작하여 설치할 것을 중문의과대학교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입간판까지 포천시가 시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다시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개교이래 두 번에 걸쳐 1천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입간판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마 고속 관광'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 25인승, 35인승, 45인승

효 도 관 광
신 혼 여 행
수 학 여 행
문 화 재 답 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